

지역소멸 해법 한자리에… SOVAC, AI로 ‘로컬의 미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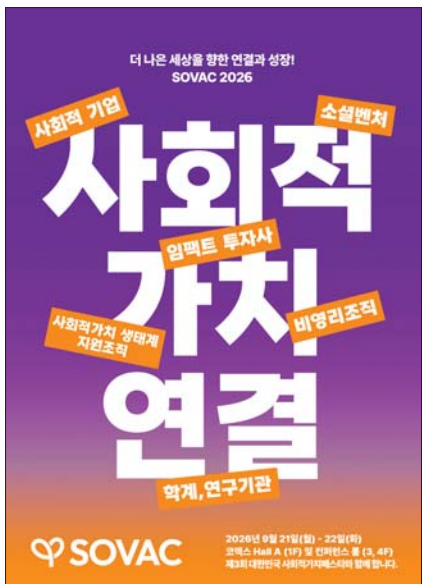
코엑스에서 지역·AI 사회문제 해법 공개
청년 유출·인구 감소 집중 조명
228개 기업·기관 세션·전시 참여

국내 대표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 SOVAC(Social ValueConnect)이 지역 격차와 청년 유출,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SOVAC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공동 주관한다고 20일 밝혔다.

SOVAC은 2019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표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적가치 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SOVAC은 228개 기업·기관과 함께 세션과 마켓,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SOVAC 2026’ 포스터. /SK그룹

선보인다.

올해 SOVAC의 핵심 의제는 ‘로컬(Local)-지역의 미래’다. SOVAC은 지난 5월부터 오프라인 모임인 ‘SOVAC Salon’을 통해 지역 청년과 사회적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지역의 과제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행사 첫날인 21일 열리는 ‘SOVAC 플래그십 세션’에서는 기업과 학계, 사회적가치 생태계 관계자들이 지역 현장의 과제와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과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짚는다.

이어 육심나카카오임팩트사무총장과 하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 이강희 다론포도 대표 등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북 시민재단과 희망제작소, 초록우산 등도 청년과 돌봄·복지, 창업·투자, 금융 분야의 지역 문제와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AI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사례도 공개된다. SK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기업의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발생한 변화를 AI로 분석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측정·평가 플랫폼을 처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은 지역 돌봄과 AI 격차 해소 등에 AI를 접목한 사례를 발표한다. ‘AX 기획전’에서는 사회적가치 분야 실무자들이 보고서 작성과 자료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프롬프트도 무료로 공개한다.

행사장에는 전시·마켓 부스 300여개가 마련된다. SOVAC 마켓에서는 지역 기업과 조직들이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된 팝업부스에는 57개 기업·조직이 참여하며 사회적가치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미니 채용박람회와 관람객의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도 진행된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올해는 ‘로컬-지역의 미래’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협력과 시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ESG 선도대학, 시몬스 ESG 현장학습

ESG 선도대학이 시몬스의 ESG 경영을 배우기 위해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의 심장부를 방문했다. 20일 시몬스에 따르면 경기대학교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운영하는 ‘2026 ESG 선도대학’은 시몬스 팩토리움과 시몬스 테라스에서 ESG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ESG 선도대학



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 이웃 지원을 위한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SK온, 헝가리 사회공헌 인정 2년 연속 수상

발달장애인 음악축제·기부 활동 전개
직업교육·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확대
현지 진출 기업 CSR 시상식서 모범상

SK온이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와 기부·헌혈, 직업교육 등 헝가리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현지 진출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SK온은 ‘제2회 헝가리 진출 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상식’에서 ‘나눔실천 모범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주최로 지난 18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지역사회 기여와 환경 보호, 교육·복지 지원 등에 힘쓴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SK온은 지난해 제1회 시상식에서 ‘혁신적 CSR 실천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식 SK온 유럽 법인장은 행사에 참석해 헝가리에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SK온은 2020년 헝가리 코마름에서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공익재단 기부와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 지



김성식 SK온 유럽 법인장(오른쪽)과 박철민 주헝가리 대사가 18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2회 헝가리 진출 기업 CSR 시상식’에서 SK온의 ‘나눔실천 모범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역 학생 직업교육 등 현지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GMF)’이다. SK온은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함께 2023년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현지에서 첫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에는 헝가리 정부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취약계층 나눔

소진공, 망원시장서 장보기 행사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20일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소진공인 태연 이사장과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망원1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송백·서림·대주·오칠경로당 등 인근 4개 경로당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대전 동구지역에서 독거어르신의 따뜻한 명절과 겨울나기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소진공 ‘SEMAS 봉사단’ 10명이 참여해 이불과 쌀 10kg를 독거어르신 50가구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인부와 건강을 챙기는 말벗 봉사를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 나눔위, 학대피해아동 가정지원

이노비즈협회는 산하 이노비즈 나눔위원회가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20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노비즈 나눔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노비즈와 함께하는 나눔의 여정’을 진행했다. /이노비즈 나눔위원회

LG CNS, 수학으로 미래기술 경쟁력 키운다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2.8배↑

LG CNS가 기초 학문으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대회를 운영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 CNS는 수학 경진대회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6’을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학적최적화는 주어진 자원과 조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꼽힌다.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대한산업 공학화와 함께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참가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대비 약 2.8배 이상 늘어 958개팀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수도 1448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등 전세계 55개국이 참가했으며, 국내외 우수 대학인 스탠퍼드, 카네기멜론과 액센추어, IBM 등이 참여했다.

/조민선 기자 msjo@

한화그룹, 협력사에 1850억 조기 지급

추석 앞두고 1580개사 자금 지원

한화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80개 협력사에 약 185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급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5억원, 한화오션 550억원, 한화시스템 245억원, 한화건설부문 140억원 등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들이 성과급과 2·3차 협력사 자재 대금

등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올해 설 명절에도 약 179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고, 지역사회도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며 상생경영 원칙인 ‘함께 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피아니스트 이정우 에네스쿠 콩쿠르 우승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인 피아니스트 이정우가 ‘2026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정우가 현지시간 19일 열린 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재단 장학생인 첼리스트 박상혁이 첼로 부문 3위에 올랐다. 정몽구재단 장학생의 입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혁 기자 sh95@



9월

21일 (월)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18~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20/24

파주 15/28

인천 18/28

수원 17/29

평택 16/29

연천 14/29

동두천 14/28

가평 13/28

서울 18/30

양평 15/28

용인 17/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